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 은 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The Relationships of the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Lee, Eun-A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married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describe their own gender-role attitude, mid-life crisi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cluding search components as both middle-aged men and women's income, and education with occupation.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composed of mid-life crisis, depression, and perceived happiness. These data were collected from 397 married, middle aged men and women from 40 years to 59 years-old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iddle-aged men's gender-role attitudes were mor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than of women's. Second, in general characteristic, the m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However, the women's gender-role attitud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s, a period of marriage,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Third, in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come. And, the wome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a period of marriage,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Finally, the men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id-life crisis and depression, an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And, the women's gender-role attitud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Key words : middle-ages married men and women, gender-role attitude, psychological adjustmen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로움, 교육수준의 향

상 등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관과 의식수준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생주기중 중년기 이후가 차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2000)에 의하면, 40~5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1980년에 전체 인구의 14.7%, 1990년에 19.2%, 2000년에 24.5%로 나타나 중

[†] Corresponding author, Tel : 063-241-8946, Fax : 063-270-3839, E-mail : silver-0304@hanmail.net

년기에 해당하는 남녀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전에는 생활주기의 한 단계로만 인식되었던 중년기가 근래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인 동시에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로 밝혀지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년기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년기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먼저, 중년기를 인생의 절정기이며 황금기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이다.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 세대로 Oetting (1967)은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 하였으며(장하경, 1991 재인용), 사회·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절정에 도달해 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완숙한 시기에 해당된다(이성조, 1998).

반면, 부정적인 관점(Jacues, 1965; Leshan, 1973; Livson, 1988)에서는 중년기를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았다(장하경, 1991 재인용). 중년기에는 생리적 변화와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는 절정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하강과 은퇴를 가져오는 시기이며, 노후에 대한 불안, 주변인들의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중년기가 느끼는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Havighurst(1972)는 중년기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하며,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끼게 되는 시기로 보고, 개인적 요구나 필요성 뿐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적 압력에 의해 생겨난 사건이 유발되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연화, 1999 재인용).

이러한 변화와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한 과정'(서병숙, 1989)으로서의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중년기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 및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국내의 많은 연구결과(고기숙, 2003; 김명자, 박성연,

1989; 김연화, 1999; 김현지, 2000; 김현화, 1992; 박준희, 2004; 이성조, 1998; 장하경, 서병숙, 1992)는 개인의 특성과 발달에 따라 중년기가 전환 또는 위기의 시기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시기로서 복합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는 성역할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어린시기부터 자신의 성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기대되어진다. 남녀 모두 각각에게 기대되어지는 성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 압박 및 심리적 부담감을 더 경험하게 되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혼란과 좌절 등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더 진전되면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남녀간의 성역할 의식의 차이는 결혼관계에서 역할과중이나 역할갈등을 심화시키며 이러한 갈등은 결혼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성역할은 개인의 적응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았다.

Johnson(1982)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보다 높은 성취감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기준 때문에 여성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신미경, 2002 재인용), Caldwell(1987)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 수준이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임정빈, 정혜정, 1997 재인용). 강은령(1989)은 남편과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홍선경(1996)의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에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태도는 개개인의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지금까지 중년기를 다루어온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발달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

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갱년기 증상이나 폐경 등의 신체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년기에서의 적응을 위기감이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그 관련변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정희, 1996; 김명자, 1989; 김명자, 박성연, 1989; 김애순, 1993; 김미성, 1991; 신기영, 옥선화, 1991; 유주연, 1995).

또한 연구의 초점을 중년기 여성에게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년기 남성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기숙, 2004; 김현지, 2000; 이명주: 2002, 이정아, 1997: 조은숙, 1990: 최은경, 1993: 황인성, 1998).

이와같이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영역에서 중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년기가 인생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이며, 가정 및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층의 인구가 계속 증가(통계청, 2000)하는 현시점에서 성역할 태도에 따라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이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자료와 나아가 노년기를 준비하는 전단계로서의 정보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중년기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실재를 파악하고 중년기 연구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중년기 기혼 남녀의 심리적 적응은 성역할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특징

중년기란 성인의 중간 나이이며 탈부모기로서 대부분

의 연구자들은 자녀가 독립하기 시작하는 40세 경부터 60세 이전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Jung, 1933; Levinson, 1978; Gould, 1978; 김남순, 1986; 김재은, 1983; 김명자, 1989; 장재정, 1987; 최선미, 1992). 중년기는 직업적 영역, 사회활동 등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서 정서적, 능력적, 경제적인 면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직업, 결혼 및 사회적 경험이 쌓여 나름대로의 인생 유형을 형성해 가는 안정기인 동시에 호르몬과 생리적인 변화로 인한 신체적 노화, 가족구조의 변화, 실직과 은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직면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또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혹은 변동의 시기이며 재적응의 시기이기도 하다(정숙희, 1996; 이성조, 1998).

이러한 중년기의 특징으로 먼저 생물학적·신체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체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활동이 둔화되는 이러한 변화는 중년기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정의되는데, Klein(1988)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보다 자신의 생활에 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Ckun과 George (1984)는 신체적 건강은 그것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김연화, 1999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남녀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을 때 중년기 적응에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애순(1993), 김명자와 박성연(1989)은 중년기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기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성수(2001)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년기는 다양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심리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김명자(1991)는 중년기는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생활을 재배치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환적인 시기이고 동시에 이에 대한 재적응의 시기이기도 하며, 친구나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필연성과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생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하여, 가족유대관계의 정도가 높

을수록 심리적 위기의식의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고기숙, 2003; 서정아, 1997; 유주연, 1995; 황인성, 1998)가 있으며, 김애순(1993), 박준희(2004), 신기영(1991), 이성조(1998) 등에 의해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도 선행 연구결과들(김명자, 1989; 김연화, 1999; 김현화, 1992; 장하경, 1991)은 중년기가 성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등의 개인적 특성과 발달에 따라 전환 또는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사회적인 많은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중년기는 생산과 성취에 의한 인생의 절정기인 동시에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전환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년기 위기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혀지면서 중년기의 심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중년기의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란 남성,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임정빈, 정해정, 1997). 즉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나 여성(또는 남성)의 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낸다. 남녀 역할의 분화를 지지하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 보고 남성과 여성 역할간의 융통성과 역할 공유를 지지하면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 본다.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영표, 1990; 이선미, 1995; 정승혜, 1988; 정지숙, 1993; 최규련, 1984; Scazoni, 1975).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선주, 1997; 윤경자, 1997; 차성란, 1998; 최규련, 1995)에서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명숙, 1996; 황은, 2004)에서도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역할 태도에 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이고 평등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기승주, 1988; 문영표, 1990; 윤경자, 1997; 이정아, 1997), 이선미(1995)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자, 1997; 이미숙, 1985; 이정연, 1982; 최규련, 1984). 반면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서는 불일치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기승주, 1988; 이정아, 1997). 문영표(1989)와 이선미(1995)의 연구에서 남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형실과 옥선화(1985)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지만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인보다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손소영(1996)은 부부 모두 교육 연한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라는 결과가 있으며(기승주, 1988; 최규련, 1984), 반면 다른 연구들(문영표, 1990; 윤경자, 1997; 이정연, 1983; 이형실, 옥선화, 1985)에서는 소득이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성희와 김태현(1989)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에 소득이 많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나 남성은 그 관계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직업과 관련하여, 문영표(1990)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전문직인 경우에,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선미(1995)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직업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윤경자(1997)의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직업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남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3)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

중년기는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혹은 변동의 시기이며 동시에 재적응의 시기이기도 하다. 즉, 중년기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적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중년기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 우울감, 행복감, 심리적 복지감,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박수정 1992; 한미

선, 1992; 홍선경, 1996).

중년기의 위기와 관련하여, Levinson과 그의 동료들(1978)은 중년기 남성들은 어떤 경우에는 회의에 빠져 끊임없는 의문 속에서 방황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민도 하지 않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심리적 갈등은 겪으나 사회적으로는 순조롭게 생활한다고 주장하였다. Riegel(1976)은 인간의 성장은 안정기보다 위기의 시기인 전환기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고기숙, 2003 재인용). 김명자(1989)는 중년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보편적인 위기로써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후회감, 실망감, 초조감, 허탈감 등 종합적인 개념, 즉 과거 및 현재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고 중년기 위기를 정의하면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서 위기감의 경험은 변화에 대한 준비와 계획, 대인관계 체계의 상실 여부, 역할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의 자각 등과 관련된 인성·사회 심리적 요인, 시대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위기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년기에는 심각한 자기 의심이나 혼란을 겪기도 하고(Tamir, 1989), 70%가 위기를 겪는다(Ciernia, 1985)고 하였다(고기숙, 2003 재인용). 이혁구(1999)는 심리적 갈등과 방향의 경험의 축과 사회적 적응의 두축에 따라 중년기 남성들이 다양한 위기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신기영(1991)은 중년기 주부는 폐경과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남편과 자녀의 무관심으로부터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위기감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으며(고기숙, 2003; 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기감과 우울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박경숙, 1990).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위기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 되었으며(고기숙, 2003; 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이성조, 1998),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변인이 중년기 남녀의 위기감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행복감이나 우울감과 관련하여, 박수정(1992)과 한미선(1992)은 사회관계망과 자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경숙(1990)은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이 행복감 및 우울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하여, 이기숙과 김현지(2002)는 중년기 남성이 가족의 안녕보다는 자신에 대한 불안 등

이 더 자주 나타났음을 증명하였고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넓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김명자(1993)는 사소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중년기 개인의 복지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중년기에는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와 함께 심리적인 위기감이거나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으며, 선행연구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유주연, 1995)은 중년기의 이러한 변화와 전환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다 잘 대처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중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인생의 중간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적응을 생활의 만족을 나타내는 넓은 개념의 복지감, 건강, 안녕, 행복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의 하위영역으로는 자존감, 생활만족도, 생활의 질, 우울, 불안 등을 측정하였다(김태현 외, 1999; 박수정, 1992; 신기영, 1999; 전영자, 1992; 진미정, 옥선화, 1994; 한미선,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초래된 변화나 위기에 대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 조절, 해소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적응의 하위 개념으로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과 긍정적 측면의 행복감 및 부정적 측면의 우울감으로 측정하였다.

4) 중년기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

중년기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자존감,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성역할과 위기감에 관하여, 장상희(1988)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회화된 중년의 전업주부들은 근대적 성역할관을 내면화시킨 주부보다 아노미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성역할과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박경숙, 1990; 김현화, 1992; 장하경, 서병숙, 1992; 홍선경, 1996)와도 일치하며 성역할이 중년기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 태도와 정신건강에 관하여, 장재정(1987), 전양숙(1991), 홍선경(199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우울감이 높다고 하였으나, 신미경(200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불안 및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미숙(1997)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선, 1987; 조인선, 1986). 김정순(1994)은 농촌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자녀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성역할 태도가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의 여러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중년기의 위기와 성역할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의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중년기 기혼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이용하여 신뢰도

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라북도 소재의 학교, 기업체, 재래시장 등을 통해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6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9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159명, 여자 238명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남자 56.6%, 여자 68.1%로 여자의 경우에 40대가 50대의 두배 정도를 차지했다. 종교는 여자가 74.8%로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기간은 남자는 15년 이하인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19.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남자는 대졸 이상이 고졸의 3배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여자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남자의 경우 전문행정직이 52.8%로 가장 많았고 전체가 직장남성으로 나타나 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여자는 단순노무직이 16.0%로 가장 적었으며 전업주부가 27.7%로 나타났다.

표 1.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N(%) | |
|-------|-----------|-----------|-----------|
| | | 남 | 여 |
| 연령 | 40~44세 | 50(31.4) | 97(40.8) |
| | 45~49세 | 40(25.2) | 65(27.3) |
| | 50~54세 | 40(25.2) | 51(21.4) |
| | 55~59세 | 27(17.0) | 25(10.5) |
| 종교 | 유 | 101(63.5) | 178(74.8) |
| | 무 | 58(36.5) | 58(24.4) |
| 결혼 유형 | 연애혼 | 69(43.4) | 97(40.8) |
| | 중매혼 | 57(35.8) | 91(38.2) |
| | 기타 | 32(20.1) | 50(21.0) |
| 결혼 기간 | 15년이하 | 45(28.3) | 46(19.3) |
| | 16~20년 | 34(21.4) | 62(26.1) |
| | 21~25년 | 35(22.0) | 60(25.2) |
| | 26년이상 | 40(25.2) | 62(26.1) |
| 학력 | 중졸이하 | 14(8.8) | 38(16.0) |
| | 고졸 | 38(23.9) | 92(38.7) |
| | 대졸이상 | 102(64.2) | 98(41.2) |
| 수입 | 150만원 이하 | 42(26.4) | 41(17.2) |
| | 151~250만원 | 32(20.1) | 55(23.1) |
| | 251~350만원 | 41(25.8) | 49(20.6) |
| | 351만원 이상 | 34(21.4) | 64(26.9) |
| 직업 | 전문행정직 | 84(52.8) | 65(27.3) |
| | 판매서비스직 | 33(20.8) | 64(26.9) |
| | 단순노무직 | 41(25.8) | 38(16.0) |
| | 무직/전업주부 | | 66(27.7) |

2. 조사도구

1) 성역할 태도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on과 Bumpass(1975), Osmond와 Martin(1975), 박숙자(1978), 최규련(1988) 등의 척도를 참조하여 구성된 기승주(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으로는 가족내 역할, 직업적(가족 외) 역할,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매우 반대(1)'에서 '매우 찬성(5)'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위기감 수준과 행복감 및 우울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위기감

중년기 기혼 남녀의 심리적 적응중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애순(1993)이 사용한 김애순과 윤진(1991)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 중 정서적인 부분만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정서적 위기감, 개별화 과정,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직업 불만족도, 결혼 불만족도, 자녀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인 적응만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정서적인 부분인 정서적 위기감(15문항), 개별화 과정(21문항),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7문항)의 세 부분만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위기감은 소외와 불행감, 권태와 자기혐오에 관한 것이며, 개별화 과정은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아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의 위기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위기감 $\alpha = .96$, 개별화 과정 $\alpha = .90$,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alpha = .82$ 였으며, 위기감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2) 행복감

행복감은 심리적 안정과 복지 상태를 의미하며 Harold Dupay의 GWB(General Well-Being)을 수정, 번안해 사용한 박수정(1992)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우울감

우울감은 어떤 일에 대해 절망적이며 회복할 희망을 버리고 포기한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을 기초로 박수정(1992)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고찰

1.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임을 보고하는 연구들(고선주, 1997; 문영표, 1990; 윤경자, 1997; 이선미, 1995; 이형실·옥선화, 1985; 정지숙, 1993; 최규련, 198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 즉, 위기감, 행복감, 우울감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분석

남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보면,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가정내 역할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영역과 전체 성역할 태도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전체 성역할 태도는 결혼기간, 학력, 수입,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21~25년인 집단이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전통적 고정관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15년 이하인 집단이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전체 성역할 태도는 결혼기간이 21~25년인 집단과 26년 이상인 집단이 15년 이하인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 전통적 고정관념 영역에서 연령이 40~44세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50~54세 집단이 가장 전통적이었으며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여자의 학력은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이었고, 가정내 역할 영역은 고졸인 경우가 가장 전통적이었으며, 전체 성역할 태도와 나머지 하위영역에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가장 전통적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대졸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문영표, 1990; 이미숙, 198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수입과 직업은 전체 성역할 태도, 가정내 역할, 전통적 고정관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수입에 따라서는 351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이고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체 성역할 태도에서는 이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행정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M(SD)

| 성별 | 성역할 태도 | | | |
|----|-----------|-----------|-----------|-----------|
| | 가정내 역할 | 직업적 역할 | 전통적 고정관념 | 전체 |
| 남 | 3.02(.59) | 3.01(.80) | 2.80(.90) | 2.94(.64) |
| 여 | 2.55(.65) | 2.35(.89) | 2.46(.96) | 2.45(.74) |
| t값 | 7.23*** | 7.57*** | 3.62*** | 6.71*** |

*** p < .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자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

M(SD)

| 변인 | | 여자 성역할 태도 | | | |
|-------|-------------|-------------|-------------|--------------|-------------|
| | | 가정내 역할 | 직업적 역할 | 전통적 고정관념 | 전 체 |
| 연령 | 40 ~ 44세 | 2.51(.66) | 2.20(.85) | 2.28(.92)a | 2.33(.73) |
| | 45 ~ 49세 | 2.56(.61) | 2.41(.89) | 2.42(.90)ab | 2.47(.72) |
| | 50 ~ 54세 | 2.54(.66) | 2.50(.86) | 2.80(.96)b | 2.62(.71) |
| | 55 ~ 59세 | 2.72(.72) | 2.42(1.03) | 2.51(1.09)ab | 2.55(.86) |
| | F값 | .71 | 1.55 | 3.46* | 1.86 |
| 결혼 기간 | 15년이하 | 2.31(.64)a | 2.11(.86)a | 2.27(.92)ab | 2.23(.73)a |
| | 16 ~ 20년 | 2.61(.63)b | 2.23(.85)ab | 2.22(.88)a | 2.35(.70)ab |
| | 21 ~ 25년 | 2.66(.64)b | 2.56(.93)b | 2.66(.99)c | 2.63(.76)b |
| | 26년이상 | 2.62(.64)b | 2.41(.84)ab | 2.61(.95)bc | 2.55(.71)b |
| | F값 | 3.19* | 2.84* | 3.42* | 3.41* |
| 학력 | 중졸이하 | 2.70(.61)a | 2.61(.93)a | 2.89(.95)a | 2.73(.74)a |
| | 고 졸 | 2.75(.62)a | 2.48(.85)a | 2.59(.92)a | 2.61(.69)a |
| | 대졸이상 | 2.29(.64)b | 2.04(.77)b | 2.07(.85)b | 2.14(.67)b |
| | F값 | 14.02*** | 9.49*** | 14.23*** | 15.55*** |
| 수입 | 150만원 이하 | 2.73(.62)a | 2.61(.89) | 2.83(.98)a | 2.72(.73)a |
| | 151 ~ 250만원 | 2.51(.67)ab | 2.32(.98) | 2.43(1.04)bc | 2.42(.79)bc |
| | 251 ~ 350만원 | 2.67(.56)a | 2.44(.94) | 2.58(.99)ab | 2.56(.75)ab |
| | 351만원 이상 | 2.35(.71)b | 2.14(.77) | 2.09(.79)c | 2.20(.69)c |
| | F값 | 3.65** | 2.54 | 5.54** | 4.83** |
| 직업 | 전문행정직 | 2.31(.60)a | 2.20(.84) | 2.17(.83)a | 2.22(.67)a |
| | 판매서비스직 | 2.56(.69)b | 2.38(.97) | 2.42(1.02)ab | 2.45(.78)ab |
| | 단순노무직 | 2.73(.67)b | 2.46(1.00) | 2.74(1.07)b | 2.64(.84)b |
| | 전업주부 | 2.67(.63)b | 2.42(.79) | 2.59(.89)b | 2.56(.68)b |
| | F값 | 4.80** | 1.01 | 3.71* | 3.45* |

* p < .05 ** p < .01 *** p < .001

3. 중년기 기혼남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자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에 따라서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영역과 행복감 및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과 우울감이 가장 높았으며, 행복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집단은 우울감이 가장 낮았으며 행복감은 가장 높았고, 150만원 이하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자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전체 위기감은 연령, 학력, 수입,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행복감은 학력, 수입에 따라서, 우울감은 연령, 학력, 수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55~59세인 경우에 전체 위기감과 하위요인인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이 가장 높았고 우울감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집단은 40~44세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21~25년인 집단에서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년 이하인 집단과 16~20년인 집단이 26년 이상인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다.

학력에 따라서 중졸 이하인 경우에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전체 위기감,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반면, 행복감은 중졸 이하인 경우에 가장 낮았고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과 행복감은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수입에 따라서는 심리적 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전체 위기감, 우울감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행복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개별화 과정은 151~250만원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51만원 이상인 경우에 전체 위기감과 하위요인 및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행복감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소득이 높을수록 위기감이 낮았다고 보고한 고기숙(2003)과 최은경(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직업에 따라 행복감과 우울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위기감과 위기감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위기감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전체 위기감과 개별화과정의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은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문행정직인 경우에 전체 위기감과 위기감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별화 과정, 전체 위기감은 전문행정직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자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

M(SD)

| 변인 | | 위기감 | | | | 행복감 | 우울감 |
|----------|-----------|-------------|------------|----------------------|-------------|------------|-------------|
| | | 정서적 위기감 | 개별화 과정 | 능력 과 활력 상실감 | 전 체 | | |
| 연령 | 40~44세 | 2.57(.89) | 3.16(.78) | 2.76(.75)a | 2.83(.72)a | 3.33(.64) | 2.27(.63)a |
| | 45~49세 | 2.83(.82) | 3.22(.67) | 3.14(.69)b | 3.06(.63)ab | 3.13(.57) | 2.51(.55)ab |
| | 50~54세 | 2.58(.87) | 3.21(.66) | 3.11(.76)b | 2.97(.65)ab | 3.30(.73) | 2.44(.68)ab |
| | 55~59세 | 2.84(.91) | 3.40(.57) | 3.46(.69)c | 3.23(.60)b | 3.03(.52) | 2.57(.49)b |
| F값 | | 1.72 | .80 | 7.83*** | 3.17* | 2.38 | 2.81* |
| 결혼 기간 | 15년이하 | 2.52(.78) | 3.10(.71) | 2.80(.70)a | 2.81(.64) | 3.34(.57) | 2.25(.61) |
| | 16~20년 | 2.67(.99) | 3.25(.83) | 2.84(.82)a | 2.91(.81) | 3.27(.70) | 2.34(.63) |
| | 21~25년 | 2.60(.78) | 3.15(.64) | 3.04(.74)ab | 2.93(.61) | 3.26(.65) | 2.42(.62) |
| | 26년이상 | 2.77(.87) | 3.27(.60) | 2.28(.70)b | 3.11(.62) | 3.14(.62) | 2.51(.57) |
| F값 | | .85 | .68 | 5.09** | 1.91 | .95 | 1.78 |
| 학력 | 중졸이하 | 3.06(.90)a | 3.29(.58) | 3.51(.75)a | 3.20(.71)a | 2.94(.62)c | 2.65(.60)a |
| | 고졸 | 2.69(.81)b | 3.25(.62) | 3.04(.73)b | 2.93(.64)b | 3.19(.59)b | 2.44(.54)b |
| | 대졸이상 | 2.46(.86)b | 3.14(.82) | 2.77(.66)c | 2.74(.73)b | 3.42(.61)a | 2.24(.62)b |
| F값 | | 6.84** | .79 | 15.35*** | 6.49** | 9.66*** | 7.29** |
| 수입 | 150만원 이하 | 2.91(.89)a | 3.27(.54)a | 3.26(.79)a | 3.08(.67)a | 3.07(.52)b | 2.55(.53)a |
| | 151~250만원 | 2.81(.92)a | 3.34(.85)a | 3.05(.83)a | 3.02(.80)a | 3.12(.65)b | 2.48(.67)a |
| | 251~350만원 | 2.72(.78)a | 3.32(.51)a | 3.11(.65)a | 2.98(.57)a | 3.21(.61)b | 2.46(.58)a |
| | 351만원 이상 | 2.27(.79)b | 2.96(.74)b | 2.71(.69)b | 2.57(.67)b | 3.46(.64)a | 2.17(.60)b |
| F값 | | 6.37*** | 4.06** | 5.29** | 6.70*** | 4.51** | 4.32** |
| 직업 | 전문행정직 | 2.44(.79)a | 2.94(.73)a | 2.77(.63)a | 2.72(.63)a | 3.36(.58) | 2.28(.58) |
| | 판매서비스직 | 2.82(.94)b | 3.36(.72)b | 3.17(.86)b | 3.12(.77)b | 3.11(.74) | 2.53(.66) |
| | 단순노무직 | 2.82(1.00)b | 3.32(.68)b | 3.01(.76)ab | 3.04(.70)b | 3.24(.55) | 2.39(.58) |
| | 전업주부 | 2.67(.75)ab | 3.26(.63)b | 3.11(.72)b | 3.01(.56)b | 3.26(.60) | 2.40(.57) |
| F값 | | 2.67* | 4.69** | 3.67* | 4.48** | 1.62 | 1.81 |

* p<.05 ** p<.01 *** p<.001

4.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분석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기감의 하위요인인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은 전체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태도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행복감은 가정내 역할과 부적상관을, 우울감은 전체 성역할 태도 및 전통적 고정관념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성역할 태도, 직업적 역할, 전통적 고정관념이 전체 위기감,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및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복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전양숙(1991), 홍선경(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 전체 성역할 태도와 능력과 활력

의 상실감이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성역할 태도와 직업적 역할, 전통적 고정관념의 하위 영역이 우울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위기감과 우울감은 높아지고 행복감은 낮아짐을 보여주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성역할 태도와 우울감이 더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심리적 적응과 성역할 태도의 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의 하위요인인 직업적 역할, 전통적 고정관념, 전체 성역할 태도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여자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성역할 태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 변 인 | | 심리적 적응 | | | | | | | |
|-----------------------|-----------|---------------|------|------|-------|------|--------|--------|-------|
| | | 위기감 | | | | 행복감 | 우울감 | 전 체 | |
| 정서적 위기감 | 개별화 과정 | 능력과 활력 상실감 | 전체 | | | | | | |
| 성 역 할 태 도 | 남 | 가정내 역할 | .08 | -.03 | .17* | .08 | -.16* | .15 | .11 |
| | | 직업적 역할 | .15 | .02 | .16* | .13 | -.09 | .10 | .13 |
| | | 전통적 고정관념 | .15 | .01 | .18* | .13 | -.10 | .18* | .14 |
| | | 전 체 | .15 | .01 | .19* | .13 | -.12 | .16* | .15 |
| 여 | 여 | 가정내 역할 | .06 | .05 | .10 | .07 | -.06 | .15* | .09 |
| | | 직업적 역할 | .13* | .10 | .18** | .15* | -.17** | .25*** | .18** |
| | | 전통적 고정관념 | .14* | .09 | .19** | .15* | -.17* | .25*** | .18** |
| | | 전 체 | .13* | .09 | .18** | .14* | -.16* | .25*** | .18** |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고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 수준을 규명하여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 토대로 요약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윤경자, 1997; 이여형, 1996; 정지숙, 1993; Tomeh, 1978)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남자의 경우에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자의 경우에 교육이나 취업의 확대를 통해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기회와 권력 면에서 남성보다 더 평등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성역할 태도를 수정해가거나 새로운 성역할을 수용하는 반면, 남자들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역할갈등이나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성역할 사회화가 시작되는 가장 기본 집단인 가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링과 의식교육이 먼저 이루어져 남녀 평등의식의 기초가 다져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라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김명자(1989)의 중년기 위기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김현화(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기 기혼 남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함께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시대적·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성역할 태도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학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졸인 경우에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연령, 결혼기간, 학력, 수입,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40~44세인 경우에 전통적 고정관념 영역에서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혼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에 가정내 역할, 직업적 역할 및 전체 성역할 태도가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대적이고 평등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들(기승주, 1988; 문영표, 1990)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은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기승

주, 1988; 신미경, 2002; 이형실, 옥선화, 1985; 최규련, 1984)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에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탈피하여 평등적이고 근대적인 성역할 의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되며, 여성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회진출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와 함께 근대적인 경향의 성역할 태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수입에 따라서 전체 성역할 태도와 직업적 역할을 제외한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이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들(문영표, 1990; 이정연, 1983; 이형실, 옥선화, 1985)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는 다른 연구들(신미경, 2002; 최규련, 1984)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직접적인 가정관리 담당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좀더 융통적인 가계관리 및 생활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부부사이에서 좀더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편과 부부의 역할공유에 있어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행정직인 경우에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고 1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수입과 직업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영표(1990)의 연구에서 전문직인 경우에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변화와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의식교육과 실제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며 개개인의 성역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을 보면, 남자의 경우에 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경우에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위기감의 하위요인인 능력

과 활력의 상실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위기감이 낮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89; 김애순,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안정기이며 동시에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 즉,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보조나 지원, 은퇴 후 재취업과 적응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확충과 함께 각 가정의 가족원과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연령이 55~59세인 경우 전체 위기감과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및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이 21~25년인 경우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이 가장 높았으며, 26년 이상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 이는 중년기가 끝나가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적, 심리적 노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년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신체적 노화 이외에 중년기로서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완숙미, 노련함, 능숙함 등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위기감과 우울감이 가장 높았으며 행복감은 가장 낮았고, 직업에서는 전문행정직인 경우에 위기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응을 쉽게 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경숙(1990), 박수정(199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나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년기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각각 학력,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이외의 다른 영역들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등

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성역할 태도 및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되어 있었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보다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남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학력과 경제적인 영역이 중년기 남자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Farrell과 Rosenberg(1981)가 하류계층의 남성일수록 모든 영역에서의 고립감이 증가하여 중년기에서 계층이 낮다는 것이 적응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명자, 1989 재인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년기 변화와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계층의 중년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층이 접하기 쉬운 지역사회 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전체 성역할 태도와 우울감 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 성역할 태도와 하위요인 모두는 위기감의 하위요인인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가정내 역할은 행복감과 부적 상관을, 전통적 고정관념 영역과 전체 성역할 태도는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중년기 남자의 성역할 태도는 자신의 능력과 활력의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성역할이 중년기 남자의 심리적인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청년기 때의 능력, 활력, 자신감 등이 감소하면서 경험하는 상실감도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도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의 성역할 태도를 점검해보는 과정이 중년기에는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융통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 전체 성역할 태도는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전체 위기감, 우울감과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행복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성역할 태도의 하위요인인 직업적 역할과 우울감, 전통적 고정관념과 우울감, 전체 성역할 태도와 우울감이 나머지 변인들보다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행복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위기감과 우울감은 낮아지며 행복감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직업적 역할에서의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이 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 역할에서의 성역할 태도보다 직장에서의 성역할 태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고정관념에 따라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전체 심리적 적응과 성역할 태도의 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의 하위요인인 직업적 역할, 전통적 고정관념과 전체 성역할 태도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중년기 여자의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 간에 남자의 경우보다 여자가 더 많은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는 여성적인 태도나 가치 등을 피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은 여성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남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Scott(1990)는 성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성차를 강조하는 것보다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현사회의 개인차, 다양성, 차이, 주관적 현실 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볼 때, 고정관념에 얽매어 남녀 간에 분명하게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로운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의식변화와 융통성 및 변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직장,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가정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동등하고 상호간에 존중하는 인격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갈으로써 평등한 성역할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장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적 불평등이나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직장내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학교교육, 대중매체, 지역사회 시설 등을 통한 가족생활 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 남녀 평등의식 교육 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전주 시 지역의 40~59세 사이의 중년기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역, 연령, 결혼유무, 이혼, 별거, 무자녀 등 다양한 생활유형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가족 및 사회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의 모색과 함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만을 다루었으나, 심리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 행동적 위기 등도 함께 고려한 중년기 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주부/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199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기숙(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선주(1997). 취업주부의 부모기 전이 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 태도와 결혼적응. 대한가

- 정학회지 35(5); 17-32.
- 기승주(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농촌부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1993). 중년기 연구. 교문사. 서울
- 김명자, 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 김미성(1991). 성역할정체감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2001).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중년기 위기의 시기 확인 및 발달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199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3). 인간발달과정. 전망사, 서울
- 김정순(1994).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스트레스 인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89). 한국노인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한국노년학회지 9(10); 168-176.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회지 19(1); 61-81.
- 김현지(2000).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표(1990). 도시 부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 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아(1997).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소영(1996). 부부의 성별 및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영, 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미경(2002). 성역할태도에 따른 주부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 연구.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9-91.
- 유주연(1995).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기숙, 김현지(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0(11); 133-144.

- 이명주(2002).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85).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51-170.
- 이선미(1995). 부모자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조(1998).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김태현(1989).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 역할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5.
- 이어형(1996).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1997). 부산시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1983).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선(1987). 중학생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환경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혁구(1999). 중년기 위기와개인적 반응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학회지 3; 149-64.
- 이형실, 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1.
- 이형초(1992).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우울감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장상희(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집(여름호); 61-89.
-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하경(199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하경, 서병숙(199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0); 263-276.
- (1993).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Gender Role)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56-168.
- 전양숙(1991). 성역할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희(1996). 중년 여성 우울증 환자를 위한 집단 사회사업 개입.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숙(1993). 부부의 성역할태도,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선(198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3.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399-413.
-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선미(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경(1993).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한미선(1992). 중년기 부인의 자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경(1996).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 은(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황인성(1998).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iernia, J.R.(1985). Death concern and businessmen's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Reports*, 56, 83-87.
- Gould, R.L.(1978). *Transformations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Y. : Simon and Schuster.
- Hvaighurst, R.L.(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 David Mckay.
- Jung, C.G.(1933).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 Pantheon.
- Klein, R.B., Canter, W.A., Robin, A.(1988). Parameters of teenage alcohol use : A path analytic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4), 521-528.
- Levinson, D.J., Darrow, C.N., Klein, E.B., Levinson, M.L., Mckee, B.(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 Knopf.
- Riegel, K.F.(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100), 689-700.
- Scazoni, J.(1975). Sex-role, Economic Factors, and Marti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130-145.
- Tomeh A.K.(1978). Sex-role orientation : An analysis of Structure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0.